

깊어가는 남도의 가을... 떠나요~ 11월에 ○○으로

文香 가득한 광양으로

향교·이균영문학동산·망덕포구 등 반일·당일·1박2일 여행상품 내나

광양시가 가을의 서정이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인문의 향기와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11월 광양여행코스'를 내놨다.

광양시는 광양향교, 이균영문학동산, 어치계곡 생태탐방로 등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2일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한나절'은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특화거리-인서리공원-광양향교-이균영 문학동산을 잇는 인문 예술 코스다.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 공간이었던 '광양향교'는 은행잎이 곱게 물드는 11월이 가장 아름답다. 외삼문인 풍화루를 통과하면 단정하게 배치된 대성전, 명륜당 등이 고즈넉하게 방문객을 반겨 마음이 고요해진다.

광양향교를 왼쪽으로 돌아 오르면 이상문학상과 단재학술상을 수상하며 문단과 사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 문학동산이 있다.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난 이균영은 광양중학교, 경북고등학교, 한양대 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덕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균영 문학동산에는 이상문학상 수상작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문학비 등이 있어 그의 문학적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는 당일코스는 유당공원-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특화거리-인서리공원-구봉산전망대-이순신대교-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 & 시 정원)를 여행한다.

광양 원도심에 자리잡은 유당공원은 1547년, 광양현감 박세후가 읍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보안림으로 오랜 역사를 켜켜이 새겨온 정원이자 기억의 공간이다.

500년의 나이테와 아름다운 수형을 자랑하며 천연기념물 제235호 '양읍수(光陽巨木)'와 '이팝나무'로 보호되고 있는 노거수들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한다.

광양의 하룻밤을 꿈꾸는 1박 2일 '광양에서 별



광양시가 만추의 계절에 '인문의 향기와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11월 광양여행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의 문학적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이균영 문학동산. <광양시 제공>

해는 밤' 코스는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부터 망덕포구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까지 광양의 자연과 문화를 두루 여행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첫날은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특화거리-인서리공원-백운산자연휴양림-옥룡사 동백나무숲-구봉산전망대-이순신대교 코스다.

둘째 날은 김시식지-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즐거움 미식-어치계곡 생태탐방로에서 느긋하게 1박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는 진상면 내회교(橋)에서

구시폭포까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한 1.25km 탐방로로 내밀한 자연을 폐부 깊숙이 호흡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가을의 절정인 11월 광양여행코스는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풍광과 인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향교, 유당공원 등 광양의 색채를 담고 있는 고즈넉한 역사 공간들과 전남도립미술관의 수준 높은 전시들을 찾아 고요한 사색과 함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국동항 건설 기재부 예타 통과

2030년까지 국비 1415억 투입

여수시는 숙원사업인 국동항 건설공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비 1415억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안시설) 12개소(1209m),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인에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아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안전 강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 어항이자 남해권의 중심 수산업 전진기지에 부합하는 어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열린어린이집 선정

183곳 중 113곳 '전체의 62%'

부모 참여 확대로 안심 보육

순천시가 시설 개방과 부모참여를 확대하는 '열린어린이집' 113곳을 선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참여 주도 방식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183곳의 62% 비중은 113곳이 '2023년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목표 비율인 40%를 크게 웃돈다고 순천시 측은 설명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외부 보육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서는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등을 들여다봤다. 올해는 신규 8곳과 재선정 55곳, 정기점검을 통한 유호 어린이집 50곳 등 모두 113곳이 선정됐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보조교사·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가을 선율 보성으로

이달 북재에서 만나는 음악회·전시회 등 문화행사

보성군은 복합 문화 공간 '북재'에서 11월 한 달간 '북재에서 만나는 가을 음악회', '보배성 시월국화 분재 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달 행사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의 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재에서 만나는 가을 음악회'는 11월 매주 토요일(4일, 11일, 18일, 2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북재 2층 그린다향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음악회에는 통기타 가수 강현수, 퓨전국악그룹 보성소리예술단, 보성소리그룹 프리미에스, 클래식 성악 가수 다카포아리아가 출연해 가요와 국악, 클래식을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배성 시월국화 분재 전시회'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북재에서 일주일간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180여 점의 국화 분재 작품으로 꾸민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가을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원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도 알리는 기회가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재를 찾는 모든 분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가을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원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도 알리는 기회가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재를 찾는 모든 분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11월 한 달간 복합 문화공간 '북재'에서 '북재에서 만나는 가을 음악회', '보배성 시월국화 분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북재에서 열린 음악회 모습. <보성군 제공>

한편 북재는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가로지르는 고갯마루에 있다. 연면적 4만9430㎡ 규모의 3개 층으로 조성된 건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층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보성군의 유

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2층에는 카페 그린다향과 특산물 판매장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리산 단풍 속으로

피아골 단풍축제 4~5일 개최...힐링걷기 등 체험·먹거리

올해 47번째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가 오는 4~5일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일원에서 열린다.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현용일)는 '산도 물도 그대로 단풍이여!'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먹거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축제 첫날 오전 9시 30분에는 '단풍길 따라 힐링 걷기'가 직전마을부터 표고막터까지 구간에서 펼

쳐진다. 피아골 표고막터에서는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지내는 '단풍제례'를 한다. 방문객들은 제례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나누 먹게 된다.

행사 주 무대는 연곡사 주차장이다. 이곳에서는 체험행사와 공연, 벼룩시장 등이 들 어선다.

연곡사에 만발한 국화도 감상할 수 있다.

구례군은 소설미디어 단풍 인증행사와 농촌 추수 체험, 전통 떡 만들기, 짚공예, 소원 리본 달기, 단

풍 행운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도마을부터부터 연곡사 주차장, 직전마을까지의 단풍길에서는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순환 버스를 운행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단풍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 교통 용역을 배치해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